

전남도민 체육 잔치 오늘 완도서 팡파르

오후 5시 공설운동장 개회식
프로골퍼 최경주 성화 점화
22개 시·군 대표 선의의 경쟁
부부·형제 등 이색선수 눈길



전남도민 체육 한마당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완도군 일원에서 열린다. '정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번 전남체전은 22개 시·군에서 6,706명(임원 2,328명 선수 4,378명)의 선

수단이 참가해 검도, 골프 등 23개 종목(정식 22 시범 1)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완도에서 전남체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이에 완도군은 200만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희망 체전', 남도의 멋과 맛이 있고 즐거움을 나누는 '문화·관광 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개회식은 12일 오후 5시 완도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 트로트공연과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공연이 열리고 개회식에서 선수단 입장과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대표 선서 등이 이어진다. 성화 점화는 완도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가 나선다. 개회식 후 축하콘서트에는 노라조, 다비치, 송가인, 장민호 등 인기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 62년 동



왼쪽부터 천아진·천보아스 쌍둥이 형제, 김동욱 최다 출전, 최항기 최연소 참가자

안 전남체육 발전을 견인한 도내 최대의 체육행사인 전남체육대회가 완도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회인 만큼 안전하고, 정정당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군의 명예를 걸고 나서는 대표선수들 중 쌍둥이, 형제·자매·남매,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부부 등 이색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부 선수는 완도군 최경호·김유정 부부 등 14쌍의 커플이 참가하게 되며, 해남군 축구의 천아진·천보아스 쌍둥이 형제 등 형제·자매·남매, 부자, 부녀, 모자, 모녀 26팀이 출전한다. 광양시 육상 마라톤 선수로 참가하는 김동욱씨(57)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

르지 않고 22회 연속으로 전남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최장기간 출전선수'로 명함을 내밀었다. 나주시 소프트테니스 김재곤씨는 88세 나이로 본 대회 최고령으로 참가해 건강을 뽐내고 있고, 무안군 태권도 김항기씨는 17세 나이로 참가해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전·현직 국가대표들도 전남도민으로서 각 시·군을 대표해 기량을 뽐낸다. 전 불링 국가대표 최복음과 백종윤(광양시),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위진아(여수시)를 비롯해 현재 사격 국가대표인 박예은(여수시)과 불링의 가수형(광양시), 김현미(곡성군)와 배드민턴 청소년국가대표인 정다연(화순군) 등이 실력 발휘에 나선다. /최진화 기자



11일 문경 전지훈련을 마친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전훈 종료 경북 문경서 트레이닝 훈련

페퍼저축은행이 올시즌 첫 번째 전지훈련 일정을 마쳤다. 지난 2일부터 페퍼스타디움에서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던 페퍼저축은행은 8일 문경으로 이동한 뒤 11일까지 4일간 전지훈련을 마치고 훈련장으로 복귀했다. 이번 전훈은 코칭스태프 8명 선수 11명 등 총 19명이 참가했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박경현, 채선아, 이한비, 아포지 포지션은 이은지, 이민서로 명단이 구성됐다. 세터는 이현, 박사랑이 미들블로커는 서재원, 박연화, 리베로는 문슬기, 김해빈이 참가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이번 전지훈련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발목 가동성 및 파워 그리고 햄스트링 등 힘쓰는 법을 습득하고자 마련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오전에 재활 및 보강훈련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본격적인 트레이닝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첫날인 9일에는 왕복 6.6km를 걷는 트레이닝을 소화한 뒤 11일 왕복 4.5km인 선유동전 트레이닝 훈련을 진행했다. 10일에는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재능기부도 실시했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불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15일부터는 다시 기초체력에 중점을 둔 광주 훈련을 시작한다. 불 훈련은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는 해외 전지훈련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아시아쿼터 선수인 엠제이 필립스는 오는 8월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임성재·정찬민 보러 가자" KPGA 대회장 '구름 관중'

코리아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1라운드 가 열린 11일 정오경 경기도 여주시 페퍼클럽 1번 홀 티박스 주변은 따가운 햇볕 속에서 골프 팬들로 빼곡 찼다. 3년 7개월 만에 KPGA 코리아투어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월드 클래스' 임성재를 보러오고 모인 골프 팬들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18위)이 제일 높고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임성재는 2019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국내 대회에서 나서지 않았다. 작년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하려 했던 그는 대회 개막 하루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임성재는 PGA투어 웰스 파코 챔피언십에서 나흘 내내 상위권을 달린 끝에 공동 8위로 마무리, 이번 시즌 7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린 뒤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아내와 함께 구경 나왔다는 박 모(61) 씨는 "TV로 늘 보던 임성재의 낯익은 아이언샷을 눈앞에서 볼 기회라고 여기고 서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몰려든 갤러리는 임성재만 보러 온 게 아니었다. 지난 7일 끝난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400야드 가까운 무시무시한 장타를 날리며 우승한 괴물 장타자 정찬민을 보러 왔다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온 서 모(43) 씨는 "요즘 다들 정찬민이 PGA투어 장타자 못지않



임성재가 11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페퍼CC에서 열린 2023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1라운드 2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KPGA 제공

다갈래 직접 보러 왔다"고 말했다. 임성재와 정찬민은 이날 낮 12시57분 1번 홀에서 함께 경기에 나섰다. 늘 '고정 응원단'이 따르는 KPGA 코리아투어 간판스타 박상현이 이들 둘과 함께 티오프한 덕에 구름 관중은 갈수록 늘어났다. 이들이 1번 홀 경기를 마칠 때쯤 이들은

따르는 갤러리는 1,000명을 훌쩍 넘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회장 입구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된 갤러리 1,8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들 3명의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추측됐다. 한편 2020년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한승수(미국)는 5언더파

67타를 때려 클럽 하우스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인 한승수는 "실수가 거의 없었다. 특히 퍼트와 어프로치샷이 좋았다"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안전 위주로 타수를 잃지 않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최형우 통산 3,800루타 KBO리그 역대 세번째 기록

KIA 타이거즈 최형우(39)가 지난 10일 광주 SSG전에서 KBO리그 역대 세번째로 3,800루타 고지를 밟았다. 이날 KIA 4번 지명타자로 나선 최형우는 1회 말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2-2로 맞선 3회 말 안타를 기록했다. 고종욱이 우중간 2루타로 출루한 1사 2루에서 최형우는 SSG 선발 이건욱의 2구째 141km짜리 직구를 통타, 좌익수 왼쪽으로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다. 경기 전까지 3,799루타를 기록 중이던 최형우는 이 안타로 3,800루타를 채웠다. KBO리그 개인 통산 루타 기록(4,077루타)은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하고 있다. 이 부문 2위 양준혁 이사는 은퇴하기 전 3,879루타를 생산했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달빛더비' 서 5경기 무승 끊는다

내일 대구FC 상대 홈경기
전적 9승 5무 7패 '우위'

광주FC가 '달빛더비'에서 대구FC를 상대로 반등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와 하나원큐 K리그 1 2023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승점 3점이 절실하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FC서울 원정에서 1-3 패를 기록하며 무승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허을의 동점골은 물론, 강팀을 상대로 투혼을 선보였지만 어렵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광주는 최근 무승을 기록한 5경기(2무 3패) 모두 경기

를 주도하고 뜨거운 공격을 퍼부었다. 어느덧 2라운드 로빈 두 번째 경기를 앞둔 만큼 쓰디쓴 패배를 보약으로 삼고 대구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각오다. 상대의 수비를 허문 건 역시 유스 출신들의 활약이었다. 후반 교체로 출장한 이희균은 투입과 동시에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허을의 득점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허을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기록, 시즌 2호 골을 신고했다. 엄지성 역시 측면에서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으며, 정호연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상대 대구는 9위(승점 14·3승 5무

4패)에 올라있다. 시즌 초 부침을 겪었지만 고재현, 에드가, 김진혁, 세징야, 이진용 등 주축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대구를 상대로 강했다. 역대 전적 9승 5무 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21시즌부터 이어진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선 3승 1패로 앞서 있다. 특히 지난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한길, 산드로, 허을, 하승운의 연속골을 앞세워 4-3으로 승리를 거두는 등 자신감이 차았다. 광주는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만큼 탄탄한 대인방어를 통해 상대 공격을 묶고, 더 적극적으로 압박과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광주가 대구를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조혜원 기자

공격포인트 살아난 손흥민 토트넘 이끌고 반등 노린다 내일 애스턴 빌라와 36R

전반기 부진을 딛고 살아난 손흥민이 막판 반등을 노리는 토트넘(잉글랜드)을 무사히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 대항전 무대로 이끌 수 있을까. 토트넘은 13일 밤 11시(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올 시즌을 출발했지만, 후반기 들어 공격포인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잔여 3경기를 모두 이겨 4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희망을 희미하게나마 이어갈 수 있다. 토트넘은 17승 6무 12패로 승점 57을 쌓아 6위에 올라 있다. UCL행의 마지막 노선인 4위에 자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19승 6무 9패·승점 63)와 승점 차는 6이다. 8위 애스턴 빌라(16승 6무 13패·승점 54)는 UEL행 티켓을 두고 토트넘과 경쟁하는 팀이라 다음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 UEL 본선 조별리그 직행 티켓은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우승팀과 5위 팀에 주어진다. 올 시즌에는 FA컵 우승팀이 결승에 오른 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4위 맨유 중 한 곳으로 결정될 터라 6위가 UEL의 마지막 노선이다. /연합뉴스